



바이애슬론 '연속 출전' 문지희·이인복

자신과 싸움 이겨냈죠 소치 희망은 60위지만 평창에선 메달 딸게요



바이애슬론은 동계 종목 중에서도 특히 비인기의 설움을 겪고 있지만 올림픽에 단골로 출전 선수를 배출했다. 1984년 사라예보 대회에 황병대가 사상 첫 출전을 일군 이후 1994년 릴레함메르 대회를 제외하고는 매 대회 태극 전사가 뛰었다.

소치에서는 이인복(오른쪽·30·포천시청)과 문지희(왼쪽·26·전남체육회)가 밴쿠버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이인복은 남자 스프린트 10km와 개인 20km에, 문지희는 여자 스프린트 7.5km와 개인 15km에 각각 출전한다.

국제바이애슬론연맹(IBU)은 2012년과 지난해 세계선수권 국가별 순위에 따라 총 220장(남자 113장, 여자 107장)의 올림픽 출전권을 분배했는데, 한국 남자와 여자는 각각 25위와 27위에 올라

스프린트 2개 종목 출격 채비 추적경기 목표로 오늘도 최선

한 장씩을 확보했다.

이인복은 밴쿠버에서 88명 중 71위, 문지희는 86명 중 73위에 그쳤다. 소치에서도 메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둘이 그간 흘린 땀은 결코 적지 않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언젠가는 세계 대회 메달을 따겠다는 각오로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인복이 15년 전 전북 무풍중에서 처음 바이애슬론과 인연을 맺을 때만 해도 국내에는 실업팀이 하나도 없었다. 선수들은 대학 생활을 끝으로 은퇴했고, 이인복도 체육교사가 될 생각이었다.

그러나 특기생으로 입학할 예정이었던 대학 진학이 어긋나면

서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빠졌다. 실의에 빠져 있던 찰나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실업팀이 극적으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외로운' 바이애슬론 선수의 길을 걷고 있다.

이인복은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최고'다. 2012년 강원 평창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에서는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같은 해 동계체전에서 4관왕에 올라 대회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았다. 2009년 독일 오버호프에서 열린 하계 세계선수권 롤러혼성계주에서는 문지희 등과 호흡을 맞춰 6위의 성적을 냈다.

전북 무주중 스키부에서 바이애슬론에 입문한 문지희도 9년째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설원의 여사수'다.

한때 무릎 부상으로 고전했으나 2007년 IBU 월드컵 스프린트

7.5km에서 56위를 기록, 사상 최초로 개인 종목 60위 안에 드는 성적을 냈다. 이듬해 3월 평창에서 열린 월드컵에서는 같은 종목 37위에 오르는 등 성장을 거듭했다.

13일 현재 이탈리아 안토르에서 펼쳐지고 있는 월드컵 6차 대회에 참가한 이인복과 문지희는 오는 20일 귀국해 국내 훈련을 실시한 뒤 다음 달 초 격전지 소치로 출발할 예정이다.

대한바이애슬론연맹 관계자는 "두 선수 모두 스프린트에서 60위 이내에 들어 추적 경기 출전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내 바이애슬론 선수는 초등학교까지 통틀어 200여명에 불과하지만 2018년 평창에서는 꼭 메달을 따겠다는 각오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